

대학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 NIE의 활용 Incorporating NIE in College Composition Education

최숙인 (교양국어)

Sook-In Choi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ey words: 글쓰기 교육 (composition education), NIE (Newspaper In Education) 시각 매체 활용 (using visual aids), 토론 (debate), 강의 방식 (teaching method) 논평 기사 (voice of newspaper), 보도 기사 (newspaper coverage), 정보화 시대 (information age)

ABSTRACT: NIE stands for Newspaper In Education, which means education using newspa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by using newspaper, a living textbook in college composition classrooms. That is to say, newspaper should be accepted as a brand-new teaching tool instead of depending on a routine textbook learning. NIE opens a new horizon for the innovative education that can improve student's creativity, thinking power, and expressiveness.

This paper reviews ways of developing classroom debate and its possible themes. Also, it recommends several teaching methods: First, how to use cartoons, photos, and advertisements. Secondly, how to use reader's opinions, editorial, and column. Thirdly, how to use newspaper coverage i.e. reports and articles.

1. 머리말

대학 국어 교육에 있어서 시각매체 활용을 통한 보다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백목과 칠판 위주의 진부한 닫힌 교육의 방법으로부터 시청각 매체를 통한 새로운 열린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시청각 매체의 활용은 여러 가지 매체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NIE(신문활용교육), M.M(mind map) 등을 도입하여 수업을 할 때, 보다 손쉽고 다양한 토론교육과 글쓰기 교육이 가능하다. 물론 LCD-Projector, OHP, 컴퓨터,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학습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정보를 최대한 이용한 입체적인 수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닫힌 상태에서부터 열린 상태로 전이하여, 보다 독창적인 창조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매체 중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이며, 이 신문을 이용한 교육을 NIE라고 한다.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 활용 교육으로 '살아있는 교과서(living textbook)인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NIE는 모든 신문의 자료를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열린 교육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판에 박힌 교과서 위주의 학습도구에서 벗어나 신문을 새로운 학습도구 매체로 수용하는 것이다. 정보의 바다와 같은 신문을 통하여 최신의 정보와 그에 따른 사고력을 기저로 하여 창의성과 표현력을 길러보자는 것이다.

1.1. NIE의 전개

NIE가 우리 나라에서 자리잡은 것은 불과 몇 해가 되지 않는다. 1994년 한국 언론 협회가 주관한 'NIE 세미나'는 신문 활용 교육, 즉 NIE라는 용어를 우리 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NIE에 관해 소개된 적은 있으나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1C를 대비하자는 교육 개혁과 함께 열린 교육을 통해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NIE는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논술 시험의 실시는 지금까지의 암기식·주입식 학습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였다.

NIE를 선도하는 국내의 언론 매체는 현재까지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대표적이다.

(1) 국내의 경우

1. 중앙일보 : 1995년 봄, 국내 최초로 신문 활용 교육을 집중 보도 하면서 NIE의 보급·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현직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NIE 연수와 교육, 1997년 5월 전용 홈페이지(<http://NIEE.JOONGANG.CO.KR>)를 개설, 1997년 10월에는 제1회 '전국 NIE 대축제'를 개최함.

2. 조선일보 : 1996년부터 NIE 전개. 처음에는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키드넷 KidNet)' 운동을 펼치다가, 1997년 5월 '키드넷 NIE' 전용 홈페이지(<http://kidnet.chosun.com>)를 개설함.

(2) 외국의 경우

신문협회 중심으로 NIE를 공동 전개하고 있으며, 개별 신문사들은 대개 NIE 전문 코디네이터나 매니저 등을 두어 자체 NIE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NIE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회의를 열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국이나 영국·스웨덴·뉴질랜드 등의 신문사들이 앞다투어 NIE관련 인터넷에 사이트들을 개설하며 NIE 활용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1.2. 목적과 효과

대학 국어 교육에 있어서 NIE의 목적과 효과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국 신문 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NIE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NIE의 목적 - 영국 신문 협회

- (1)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보조적인 교육 자료의 제공
- (2) 역사적 기록과 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접촉
- (3) 적극적인 독서를 통한 실용적인 단어와 문장력의 증대
- (4)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교육의 추진
- (5) 다양한 미디어 중 하나인 신문에 대한 이해를 촉진
- (6) 신문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신문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유익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이용하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실용적인 학습효과 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

* 신문을 활용하면 좋은 세 가지 이유 1)

첫째, 학교에서 다양한 중요 사항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료

둘째, 독서와 작문능력을 향상 시켜 주는 텍스트
셋째, 시민사회와 지구촌을 아우르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료

그리고 NIE의 교육적 효과를 교수, 학습자료로서 신문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IE의 교육적 효과 - 교수·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중요성

(1) 동기부여(Motivation) : 신문은 첫째 재미있는 것들을 담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학교 교재보다 더 많은 흥미를 유발시키며, 지적인 사람들의 매체이다.

(2) 정보제공(Information) :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주요한 교수 자료가 된다. 신문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정보 질문들, 즉 '무엇이 어떻게 되었나?(뉴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사고·칼럼)'에 답하는 뉴스 매체이다.

(3) 통합성(Articulation) : 신문의 내용 자체가 다른 중요 사항이나 능력들을 함께 길러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만화를 통해 이해력과 상징·풍자·과장들을 가르치려면 자연스럽게 그 만화의 배경이 되는 정치인이나 정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따라야 한다.

(4) 감상력(Appreciation) : 정보와 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신문을 파악할 때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신문이 독자들의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판다고 하자. 현재 어떤 가격으로 매매되는지 중고 시장 매매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고, 어떤 조건에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정보를 활용할 것이다.

(5) 협동학습(Cooperation) : 토의와 토론을 유도하는 등 교수 방법에 변화를 줌으로써 협동 학습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게 된다. 여럿이 문제를 풀고 프로젝트를 완성함으로써 협동하는 자세를 길러 준다.

이밖에도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면 독서와 작문 능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며, 기껏 TV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사회와 세계를 아는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여 줄 수 있다.

2. NIE와 토론

신문을 이용한 교육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은 가르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입식 방식보다는 학생들 자신들이 참여하는 토론식 방식이다. 종래에는 토론식 수업이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NIE를 활용하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다.

2.1 토론방식

(1) 조별구성

신문사설을 논제로 하고 한 반의 5~6명을 한 조로 하여,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한 논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토론한 후, 그 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보고하여 종합하는 형태로 진행하

1)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Edward F. De Roche 교수가 내세우는 NIE교육의 효과.

허병두, 1997, 《신문활용 교육이란 무엇인가》, 중앙M&B, pp. 22~23에서 재인용.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은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모두가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다.

(2) 진행방법

진행방법은 5~6명중에서 1명이 사회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토론한다. 각 조를 단위로 토론하고 이를 각자의 사설 공책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는 토론을 기록으로 남겨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함이다. 물론 녹음기도 함께 준비한다.

(3) 문제제기

신문에 관한 토론을 들어가기 전주에 '신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 읽기에 중점을 두고 강의했다. 그런 후에 각 조별로 하나씩 문제제기를 해 오도록 과제물을 내주었다. 그런데 이때의 문제제기는 각 조원들이 하나씩 해 온 문제제기들을 통해 의논한 결과이다.

(4) 역할분담

신문에 관한 어떤 토론이 되건 우선 각 조마다 조원들이 하나씩의 문제제기가 되어 있도록 했다. 그것을 통해 조별로 공통 주제가 선정된 후에도 각각 자료들은 조원들이 분담하여 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문의 일면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각 신문사의 기사거리를 비교한다고 할 때, 각종 다른 신문기사 1면을 1명씩 나누어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조원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별평가 시에도 평가의 자료로 필요하다.

(5) 신문의 준비와 종합토론

토론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발언을 할 때 자기의 공책에 간단히 상대방의 논지 및 주장 등을 적어 놓고 약점도 살핀다.

각 조별 토론이 끝나면 대표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다른 모두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는다.

신문에 관한 어떤 테마를 토의 대사로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신문이 준비된 상태로 진행되도록 했다. 발표 시에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 근거가 구체성을 띠도록 유도했다.

(6) 토론에 함께 참여

토론식 수업에 미숙한 학생들의 올바른 토론방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잘못된 경우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보다 선입견을 주게 할 수도 있으니 지나친 간섭을 삼가는 것이 주의할 점이다.

2.2. 토론의 주제

신문의 사설, 칼럼 등에서 토론의 논제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토론의 쟁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1) '영어 공용어'론에 대한 주장과 비판

- ①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 복거일의 저서 <조선일보> '98. 7. 3.일 보도 소개
- ② 남영신 복거일 '국제화'비판 - 남영신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 저자)
<조선일보> '98. 7. 7
- ③ '영어 공용어'는 대세다 - 남영신 반론 비판 - 복거일 <조선일보> '98. 7. 8

- ④ '지구제국'은 강대국 희망사항이다 - <조선일보> 한영우교수, '98. 7. 10
- ⑤ '지구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 <조선일보> 복거일, '98. 7. 11
- ⑥ 선택하라면 국어다 - 이윤기 '영어 공용어'론 비판 - 이윤기 <조선일보> '98. 7. 13
- ⑦ 영어 '내것화'가 관건이다 - 정과리 '영어공용어'론 옹호 - 정과리 <조선일보> '98. 7. 14

<논제> ① '영어 공용어'론은 과연 타당한가?

② 각 민족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세계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2) 이런 학생이 왕따 - <중앙일보>, '98. 11. 18

왕따 당한 女초등생 4억 소송 - <중앙일보>, '98. 11. 20

무료급식 아이들 '왕따'에 곁설움 - <한겨레>, '98. 12. 4

왕따 - 박시백의 그림세상 - <한겨레>, '98. 12. 8

<논제> '왕따 행동'의 심리적 동기, 왕따를 당한 입장에서의 심정, 이러한 경우를 방관할 때의 결과 등을 토론해 보고, '교내 폭력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술문으로 써 보도록 한다.

(3) 스크린쿼터, 문제는 배급이다 - <한겨레>, 논단(문성근), '98. 12. 4

스크린쿼터 지켜내야 한다 - <한겨레>, 사실, '98. 12. 4

쿼터 사수는 문화 중다양성 지키기 운동 - <한겨레>, '98. 12. 24

<논제> 한국 영화의 존립과 스크린 쿼터제, 미국영화 직배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해 보자.

(4) 윤리지수와 감성지수 - 효도상속세 신설 - <중앙일보>, '98. 11. 9

어린이 손가락 자르는 세상 - <조선일보>, 사실, '98. 9. 10

'월조교제' 비상 - <중앙일보>, 분수대, '98. 11. 23

수령에 빠진 어린 딸들 - <동아일보>, '98. 1. 11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 <중앙일보>, 98. 11. 21

<논제> ① 데니스 게이머의 윤리지수(EQ)를 따르다면, 여러분의 윤리지수는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② 우리 나라가 살 만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도덕 발달 수준이 대체로 몇 단계 정도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③ 학생들 주위에서 EQ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학생 자신들의 EQ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감성 지수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5) 서울대 '추천 입학' 확산 - <조선일보> '98. 7. 25

대입 무시험 전형 도입 확산 - <조선일보> '98. 7. 27

서울대 '입학시험' 없앤다 - <조선일보> '98. 7. 30

<논제> 대학 입학에서 무시험 전형은 바람직한가? 고교 정상화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6) 흔들리는 교권 - 교단이 두려운 선생님들 - <한겨레> '98. 12. 9

〈논제〉 학교체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교권이 추락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7) 대 러시아 외교의 반성 - 〈조선일보〉 시론, 김경원, '98. 7. 31

외교에 '혼선 없었다' - 〈조선일보〉, 사설, '98. 8. 4

외교의 ABC - 〈조선일보〉 홍사중 문화마당, '98. 8. 4

〈논제〉 한국과 러시아 외교문제에서 보여주는 외교적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또 무엇인가?

(8) 일 각료 또 망언 - 〈조선일보〉 '98. 8. 1

'베끼기 프로' 저작권 문제, 발등의 불 - 〈조선일보〉, 98. 10. 7

고민하는 일본지성, 〈조선일보〉, 98. 11. 17

〈논제〉 일본 나카가와 농수산상의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 연행이 분명치 않은 만큼 교과서에 실은 것은 적절치 않는다"란 말과 관련하여, 중군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역사인식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9) 일대중문화 '한국행 짐꾸리기' - 〈조선일보〉, 1998. 10. 19

일본만화 개방논쟁 - 〈동아일보〉, PC통신, 1996. 2. 5

'롤라'와 일 대중 문화 개방 - 〈동아일보〉, 새아침 새 지평, 한수산, 1996. 3. 6

또 일본문화 수용론인가 - 〈동아일보〉, 사설, 1995. 2. 6

〈논제〉 '일본 대중 문화를 개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토론해 보고, 학생들의 견해를 논술문으로 써 보자.

(10) 관객 절반은 친지.... 절반은 초대권 - 〈중앙일보〉, 98. 12. 31

용감한 관객 - 〈조선일보〉 일사일언 - 박인건, 1996. 10. 11

공연장 삐삐 소음 "이제 그만" - 〈조선일보〉, 1996. 1. 4

외국인이 본 '한국 관람 문화' - 〈조선일보〉, 1996. 1. 4

오물 던지는 응원석, 관중 수준 달라져야 - 〈조선일보〉, 독자의견, 1996. 10. 3

프랑크푸르트 발 서울행 비행기 - 〈동아일보〉, 횡설수설, 1996. 7. 14

〈논제〉 연주회장, 강연회, 경기장 등에서의 삐삐, 휴대폰 신호음에 대한 문제에 의견을 나누고, 관람 예절, 공중 도덕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또 이러한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문 작성단계에 따라 정리하도록 한다.

3. NIE와 글쓰기

NIE를 시작하기 전 주에 학생 각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보는 동일한 날짜의 신문 1부씩을 가져오게 한다. 학생들이 신문을 자유롭게 5분 정도 보게 한 다음, NIE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10분 정도 미리 설명해 준다. 이때 이론은 되도록 간단히 한다.

3.1. 만화·만평·사진·광고 - 상상력과 표현력의 개발

(1) 만화·만평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인식되는 사실보다는 일단 학생들이 흥미 있고 재미있는 소재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특히 재미있게 보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극대화된 만화·

만평·사진·광고 등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잘 활용하여 NIE를 전개하면 훨씬 흥미 있게 출발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 영상을 우리의 우뇌를 자극하여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이를 통하여 간단한 단문 형태로부터, 복문·문단의 글로 발전시킬 수 있다.

<강의 방식>

① 비교적 쉽게 이해될 만한 1칸 만평을 혹은 4칸 만화 골라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그린 것이냐고 묻고, 예상한 대로 대답이 모아지면 바로 그것이 '주제'라고 설명해 준다.

② '왜 이런 만화를 그렸을까?', '왜 하고 많은 내용과 형식 중에서 이 만화처럼 표현했느냐?' → (적절한 시간을 준 다음) 작가의 주제 의식은 주제를 남으며, 그것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의도적으로 작품 속에 나타낸다고 덧붙인다.

③ 다음에는 만화의 특정 부분들을 손으로 가리고 등장인물의 숫자나 대사를 차츰 변형시키면서 원래의 만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거나 생각하게 한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관련 질문들을 던지며 배경과 구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

④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동일한 주제라도 표현방식에 따라 글의 효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어떤 만화나 글이든지 의미 내용과 표현 형식을 유기적인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며 이해와 감상·평가를 두루할 수 있게 된다.

⑤ 또는 미리 준비한 만화를 몇 개 주고 주제를 생각해 오게 한다. 특정한 글을 주고 1칸 만평이나 4칸의 만화로 그려오게 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때 색깔 있는 볼펜·싸인펜 등을 이용하면 훨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만화에 평소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미대생들에게는 특히 권할 만 하며, 실제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해오는 학생들이 있다. 그림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만화의 지문을 변형해서 써오게 하는 방법도 있다.

(2) 사진

사진은 문자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생각하는 생활에서 느끼는 생활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다.

<강의 방식>

① 학생들이 신문사진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이때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키려면 신문에 나온 사진들이 모두 몇 개인가 세어보게 하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② 어느 정도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면 어느 지면에 사진이 가장 많이 실렸는지 좀더 범위를 좁혀 질문한다. 대개의 경우 스포츠 면이 답이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데 묘미가 있다.

③ 신문에서 사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게재된 사진이 꼭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지 아닌지 따져본다. 중요하다면 크기나 촬영각도가 과연 적절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게 한다. 나아가 어느 신문이 사진을 가장 잘 활용했는지 토론해 보는 것도 흥미를 북돋울 수 있다.

④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골라 학생들 나름대로 캡션(caption-짧은 사진 설명문)을 써보도록 한다. 단문, 복문의 훈련에도 적절하다. 이 캡션을 잘 활용하면 사고력과 어휘력, 문장력을 한꺼번에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⑤ 더 발전된 단계로는 사진 없는 기사를 골라서 함께 실릴 만한 사진을 상상하게 한다. 기사 없는 사진이 있다면 사진 설명을 참조하여 기사를 직접 써 보게 함으로써 상상력과 추리력,

표현력을 한꺼번에 길러줄 수 있다.

(3) 광고

신문 지면의 40~50%를 차지하는 광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략히 설명한다. 독자들이 신문을 보면 우선 광고들이 성큼 다가온다. 광고는 신문 제작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 되는 동시에,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광고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활용 능력 등을 두루 기를 수 있다.

<강의방식>

① 신문에서 광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따져보면서 시작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광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준다.

② 광고를 자세히 살펴보게 한다. 이때 (i)가장 따스한 느낌을 주는 광고, (ii)가장 아름다운 광고, (iii)가장 가족적인 광고, (iv)가장 전통적인 광고 등 학생들이 부담 없이 광고를 눈여겨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③ 광고를 활용하면 상상력을 길러 주기도 쉽다. 예를 들면 10년쯤 지난 뒤에도 남아 있음직한 상품들을 골라 보게 한다. 또 앞으로 새로 생겨날 만한 상품을 예측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④ 신문 광고를 통해 비판적인 안목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각 일간지에 실린 모 백화점 광고 사진을 예로 들어보자. 온갖 상품 이름과 가격들이 빼곡한 광고 한복판에 젊은 여자가 독자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 더구나 그 여자의 몸에는 바겐세일을 알리는 영문자가 문신처럼 가득 새겨져 있다.

(i) 이 그림은 광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ii) 이 광고는 과연 바람직한가? 등의 질문들을 던져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유도한 다음, 각자의 생각을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⑤ 나아가 여성을 일종의 상품처럼 악용하는 '성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광고 사례들을 과제를 통해 조사해 오도록 하여, 학생들의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다.

3.2 논평기사(독자 투고·사설·칼럼 등) - 사고력과 논리적인 표현력의 증진

학생들이 신문을 통해 보다 진지한 주제나 쟁점들로 접어들어 가면서, 생각의 깊이를 보다 깊고 다양하게 하며, 또 이러한 생각을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 독자투고

독자투고란은 신문이 독자와 상호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각 신문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보통 독자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다양한 견해와 함께, 독자만평·사진 등도 실리고 있다. 독자 투고란을 잘 활용하면 사설이나 칼럼 이상으로 NIE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독자투고란에 실린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예리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학생 각자의 관점에서 독자투고의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여기에 독자 투고를 학생들에게 손수해 보도록 권장하여, 실천적인 행동력까지 얻도록 유도한다.

<강의방식>

① 독자투고란의 자료들을 스크랩하도록 하여, 학생 자신이 왜 그것을 택했는지 간단히 말하거나 써 보도록 한다.

②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높으려면, 학생들 각자가 신문의 독자 투고란을 전담하여 스크랩하게 한다. 그 중에서 특정한 글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편씩 쓰게 하는 것이다.

③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소재를 찾아 직접 독자 투고란에 글을 보내도록 지도한다. 직접 사진을 찍고 만화를 그리거나 글을 써서 투고하면서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독자 투고들을 적절한 계획에 따라 각 학교내의 학보사나 신문사와 시기별로 조정하여 경쟁을 꾀한다.

독자투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 자신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터득해 보고, 자신의 글이 문자화했을 때의 성취감, 신문의 게재료를 받았을 때의 보람을 느끼도록 권장해 본다.

④ 대개의 독자투고의 분량이 원고지 5~6매의 분량이므로, 학생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압축된 형태의 글을 쓰게 하는 훈련으로 적합하다. 학생들의 글 중에서 가장 잘된 글, 잘못된 글을 선정하여 OHP나 실물투영기,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반 학생들과 감상, 비평해 본다.

(2)사설

사설은 신문기사의 꽃이다. 사설은 뚜렷한 주관과 논리의 명증성(明證性)을 요구하며, 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공공성(公共性)을 필요로 하는 글이다. 따라서 사설은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읽기와 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설을 통한 신문 읽기와 쓰기는 그 효과만 중시한 나머지 대개 막연하고 일방적으로 전개되어 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신문의 사설을 읽는 대학생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사설'을 가지고 활용해 보자고 하면, 학생들의 표정은 거의 예외 없이 의무감으로 굳어져 있다. 이는 사설의 주제가 학생들의 주된 관심 분야와는 거리가 멀고, 그 형식 또한 대체로 딱딱한 틀에 갇혀 있다는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신문사의 독단적 관점이 지나치게 전개되며, 급하게 쓰는 글이나 논리마저 허술하고 미흡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설을 잘 활용하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의 표현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거듭 말하자면 이때 학생들이 사설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이를 줄여 주면서 보다 깊은 글쓰기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강의방식>

① 먼저 신문을 학교에 준비해 오게 한 다음, 신문을 충분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읽게 한다. 그 다음에는 신문을 덮게 하고, 사설 일반에 대해 5분 정도 간단히 소개하고, 당일의 사설 제목을 맞춰 보도록 한다. 이때 학생 대부분이 사설을 아예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벼운 퀴즈 형식으로 시작한다.

② 읽기와 쓰기를 위주로 사설에 부담 없이 접근시키려면, 사설을 읽고 만화를 그려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i) 사설과 같은 주제의 만화를 찾아 서로 비교해 보고

(ii) 사설이 어떻게 만화로 그려졌는지

(iii) 만화가의 예리한 통찰력이 어떻게 사설의 주제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본다. 학생들이 그린 만화들을 서로 바꿔보게 하고, 집에서 완성하여 갖고 오도록 과제로 내준다.

③ 사실을 읽고 글 전체의 근거와 주장을 대략 나눠보게 한다.

대개 주장은 정책 명제로 표현되므로 ‘~해야 한다.’로 끝나는 문장들에 줄을 치며 확인하게 하면 쉽다. 이렇게 찾은 주장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붙여 보며, 꼼꼼히 글을 반복하여 읽게 하면 대개의 경우 쉽게 정리된다. 어려운 한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강의자가 먼저 읽으며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배려를 하거나, 미리 옥편을 찾아 알아오도록 한다.

④ 사실을 미리 읽어오라고 한 경우에는 우선 스크랩을 한 뒤, 내용을 요약하게 하고, 자신의 견해도 정리해 보도록 한다. 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보고, 주제문도 써보도록 유도한다.

⑤ 사실의 논리전개방식을 따지며 합리적인 논증이 되었는지 분석하게 한다. 나아가 글의 전개 방식과 구성방식, 문체, 수사법, 내재된 이데올로기까지 분석할 수 있다. 사실의 특성과 읽는 방법, 사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 등도 아울러 지도한다.

(3) 칼럼

사실이 딱딱하고 논리적이며 객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칼럼은 소재와 양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친근감을 준다. 칼럼은 사실처럼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으며 내용이 풍부하다. 또한 화자가 ‘나’이며, 집필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상례이다.

칼럼은 원래 신문 한 면에서의 한 단을 의미하며, 그것을 칼럼니스트에게 주고 마음대로 글을 쓰게 한 데서 유래했다. 칼럼은 전문적인 칼럼니스트가 쓰는 정치 사회적인 내용에서부터 비전문가가 쓰는 잡문(雜文)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칼럼은 잡문이 아닌 논평이어야 한다.

* 칼럼의 종류

우리 나라 신문에서 ‘한겨레 논단(한겨레 신문)’, ‘동아 광장(동아일보)’, ‘아침 논단(조선일보)’ 등은 전문가가 쓰는 비교적 무거운 칼럼에 속하며, ‘기자수첩’ ‘길(조선일보)’ ‘기자의 눈’ ‘창(동아일보)’ 등은 기자들이 쓰는 칼럼, ‘여성 칼럼’, ‘생활 칼럼’, ‘일사일언’, ‘청론탁설’ 등은 비전문가가 쓰는 가벼운 칼럼에 속한다.

<강의방식>

사실에 준한다. 찬반양론이 펼쳐지는 칼럼을 학생들이 읽고 스크랩하여 오게 한 다음, 조별로 토론도 해 본다.

1. 찬·반형 칼럼을 읽고 토론에 적합한 것을 골라보자.
2. 찬·반형 기사들을 읽고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3. 특정 사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따져 보자.
4. 신문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논쟁들을 모아서 글쓴이와 반대 입장에서 글을 써 보자.
5.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기사들을 꾸준히 모아 읽으며,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되는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자.

3.3. 보도기사(사건기사, 해설기사 등) - 사실적·객관적인 표현력의 심화

보도기사는 사건기사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도기사는 특히 5W1H의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육하원칙을 중시하면서 읽으면 글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 삶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습관까지 기를 수 있다. 각각 시간과 공간·주체·대상·방

법·동기라는 여섯 가지 측면에서 신문 기사들을 꼼꼼히 분석하며 읽도록 노력하면,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습관 또한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

〈강의방식〉

- ① 우선 각 신문사의 성격과 편집의 방향을 조별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한다.
- ② 각 신문의 사회면·정치면의 공통된 머리기사를 찾아보고, 다르게 편집된 경우 그 이유를 찾도록 해보자.
- ③ 먼저 학생들은 신문을 읽으며 육하원칙을 찾아 직접 지면에 표시한다. 육하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사를 찾으면 공책에 일단 옮겨 적는다.
- ④ 이어서 공책에 적어 놓은 기사를 다시 육하원칙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짧게 요약한다. 끝으로 완성된 요약 결과 역시 짝과 바꿔서 서로 지적하며 고쳐준다.
- ⑤ 이와 같이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를 정독하고 요약하게 하는 지도 방법은 학생들을 독서능력을 기초적인 삶 읽기의 차원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어 매력적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대학 국어 교육에 있어서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방법으로 NIE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찰하였다. 즉 NIE의 목적, 교육적 효과 및 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NIE를 이용한 국어교육은 기존의 교과서 위주의 닫힌 교육으로부터, 열린교육으로 전이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하나라는 점을 중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대학 국어 교육에서 NIE를 이용한 토론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토론 교육에 NIE를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한 반의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토론식 방법이 가능하였다. 또 대학 국어 수업에 가능한 토론의 방식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의 주제를 정리하였다. 즉 토론방식에 있어서 조별구성, 진행방법, 문제제기, 역할분담, 종합토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 다양한 토론이 가능한 주제들을 주요 일간지에서 영어 공용어론과 왕따문제, 스크린쿼터,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 등으로 나누어 실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NIE를 이용한 글쓰기를 신문의 만화, 시사만평, 사진, 광고 등을 이용하여 상상력과 표현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강의 방식을 체계화하였다. 또 신문의 독자투고, 사설, 칼럼 등의 논평기사를 통하여 사고력과 논리적인 표현력의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강의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사건기사나 해설기사 등의 보도기사를 통하여 사실적이고도 객관적인 표현력의 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구체적인 강의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신문이라는 시각매체를 대학 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흥미 있는 토론과 글쓰기 교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NIE의 시행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창적인 상상력과 논리적인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성과이다.

참고 문헌

- (1) 권경숙외 14인, 1996, 중앙일보 NIE자료집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 활용사례집②, 중앙일보사.

- (2) 김훈순, 1998,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인쇄매체, 연구서 25권 한국 언론 연구원 총서.
- (3) 남시옥 외 22人, 1995, 신문은 논술이다, 청림출판사.
- (4) 손석춘, 1997, 신문 읽기의 혁명, 도서출판 개마고원.
- (5) 윤금선, 1998, 신문 읽기, "효율적인 "말과 글" 강의를 위한 워크숍 자료 모임",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 (6) 조성민·정선심, 1997, 토론이 된다 논술이 된다③완성편-NIE인성교육- 토론 논술 프로그램, 사계절.
- (7) 조성민·정선심, 1997, 토론이 된다 논술이 된다①원리편, 사계절.
- (8) 조성민·정선심, 1997, 토론이 된다 논술이 된다②기초편, 사계절.
- (9) 중앙일보, 1995,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 - 입문편, 중앙일보사.
- (10) 중앙일보NIE 자료집②, 1996, 신문 살아있는 교과서 활용사례집①, 중앙일보사.
- (11) 중앙일보사, 1996, NIE 전문강사 교육결과 모음집, 중앙일보사.
- (12) 최숙인, 1996, 기사문·NIE의 활용, 대학실용작문, 교문사.
- (13) 허병두, 1996, 세상 읽기의 산 교과서-신문 문제는 창조적 사고다, 서울 : 한겨레신문사.
- (14) 허병두, 1997, 신문활용 교육이란 무엇인가, 중앙 M&B.